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6. 지난 이레 동안에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5월의 첫째 주일 아침 청파의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사랑 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큰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먼지만 일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은혜의 단비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성품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붙들린 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온갖 거짓에 시달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에 맞서 싸우면서도 영원한 꽃대이신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0:19-20 인도자

♠ 교 독 문 20. 시편 91 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함께

성경봉독 I. 행14:19-28 인도자

II. 렘4:1-4 이순정 권사

찬 양 여선교회·성가대

말 씬 I. 주와의 만남 교회의 시작 김재흥 목사

II. 묵은 땅을 갈 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60. 새벽부터 우리 다함께
 헌금봉헌 <연주:이일주>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과 맞서 싸우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의 소명을 온 몸과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약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신앙고백과 온전히 일치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40)	5월 기도의 밤
말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에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송양진 권사

5월	영접위원	김철수 이호원 오진훈 조병주 백혜숙 박시내
	헌금위원	한완식 김중수 윤주원 김애경 이기분 이순정

내가 사랑하는 교회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항구는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는 항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등대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성령이 자기의 모든 조직과 구조 안에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안에 현존하심을 믿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교회.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하여 오시는 성령의 사절을 단 한 명이라도 배척하지 않음에 열려하여 혹시 불법 침입자가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항상 자기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분을 절대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전진하려는 부푼 꿈을 지닌 채 어떠한 위험에도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교회.

자신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자기는 동요하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의식하고 있는 교회.

내가 잘못했을 때, 자책에 빠져 올바른 길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다시금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자신이 최대한의 인간 자유와 창조주에 대한 순종을 조화시킬 수 있음을 세상에 입증해 보이는 교회.

돈과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사랑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랑을 찾을 만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내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발견하려고 애쓸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깊이 이해할수록, 내가 찾아낼수록 더욱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교회.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고 덜 타협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그들의 소리를 아주 신중하고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경청하는 교회.

감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며 양해를 구함으로써 사람들의 구원에 힘쓰는 교회.

권력으로써가 아니라 ‘연약함’의 신비롭고 거룩한 힘으로써 승리하는 교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못지 않게 자기의 반대자들에게도 자유와 신뢰의 여지를 마련해주는 교회.

백성과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이들로로부터 자기가 오래 전부터 박해받지 않고 있음을 알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의심해보는 교회.

아침으로 취하게 하는 정열보다는 격렬하지만 각성시켜주는 성실을 직무 봉사자들에게서 기대하는 교회.

무사안일주의의 달콤한 안정 속에 안주하여 사는 사람들보다 도덕과 지성과 종교에 있어서 평온을 덜 누리는 나약한 사람들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내가 삶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온갖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해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해답을 줄 줄 알고, 또 그 자신이 그 해답을 모를 경우에는 그것을 함께 찾아내자고 협조를 부탁하는 교회.

자기의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때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신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는 교회.

어느 문화, 어느 언어, 어느 예술, 어느 기술, 어느 인간 역사에든지 융합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회.

복음정신을 지니기보다는 독선의 죄악을 범하지 않을까 더 두려워하는 교회.

악마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죄악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복종보다는 자유에 대해서, 권위보다는 희망에 대해서, 불사불멸보다는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부자들과의 협조보다는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악보다는 선에 대해서, 금지된 것보다는 허락된 것에 대해서, 이미 획득한 것보다는 아직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오늘에 대해서 더 자주 말해주는 교회.

- 후안 아리아스,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중에서

* 여기에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덧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나팔소리

나팔을 무지하게 잘 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아직 한번도 나팔을 본 일도 없고 나팔 소리를 들은 일도 없었다.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여행길에 이 나라를 지나게 되어 높은 산 위에서 힘껏 나팔을 불었다. 아주 근사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자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한 사람이 나팔 부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 산에서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나팔을 땅에다 던져 보이며,

“바로 이겁니다. 나팔이란 물건인데 당신네가 들었다는 소리가 여기서 울려나온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사람들은 신기한 듯이 나팔을 만지작거리다가 발로 차면서 말했다.

“나팔아, 소리를 내어라. 소리를 좀 내보아라.”

그러나 나팔이 소리를 낼 리가 있겠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팔 잘 부는 사나이는 발에 채여 흙투성이가 된 나팔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입에 대고 힘껏 불었다. 멋지고 근사한 나팔소리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나팔이 소리를 낸다고는 하나 보시다시피 손으로 잡은 후 입에 대고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그 쓰임의 법도가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늘 그대는 나팔을 발로 차고 있지는 않은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방현복 김철수 유영남 방문성 박혜경 박창운
 허정윤 김준호 곽혜자 임승동 백혜숙 김필순 박성수 김애경 조문규
 진정숙 김용원 박애순 이봉옥 박영숙 배삼순 김용길 최영혜 임 영
 정경례 박영희 방 민 고광송 이춘희 양재성 임미심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최윤희 최주환 문복순 왕수명
 이소순 서정순 전영자 권혁순 박혜경

감사헌금:

염혜영 조병주 이순정 김명순 이소순 한학수 최복선 황원순 김종현
 송은실 이승영 이지은 김수빈 예루살렘속

생일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김애경 김재광

재해헌금: 제3여선교회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김 정 섭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임 창 선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정 숙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한 선 희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흥 숙	이 영 옥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설립기념** : 교회 설립 9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긴 세월을 걸맞은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발전해나가기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2. **축하** : 우리 교회에 나오신지 50년이 된 분들을 축하합니다. 그 복된 발걸음이 건강히 오래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정두리 권사님, 문금석 권사님, 이인용 권사님
3.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4. **기도의 밤** :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5. **속회** : 5월 연합속회가 6일(금)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인도 - 고린도속 식사준비 - 나사렛속
6.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4일(수) 오전 11시 15분에, 그리고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6일(금) 12시 30분에 있습니다.
7. **결혼** : 이승영(이인용 권사·오송경 집사의 차남)군과 이지은양의 결혼식이 5월 7일(토) 오후 2시 용산에 있는 웨딩 코리아 3층에서 거행됩니다.
8. **신앙실천** :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생의 뿌리이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생의 자세를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약한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 박석희

* 헌화 : 이동천집사 아버님 (이숙 권사님) 3주기 추모

* 헌물 : 본당 음향시스템을 김철수 장로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